데스크시각

정후식

교사채용 시스템부터 바꿔라

해묵은 사학(私學)의 교사 채용 비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사장이 직접 '교사 공채 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광주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던 정광학원 사태다. 감사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올해 합격자 16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6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이다. 그 수법은 당초 전형 요소에 없던 기간제 교사 경력 가산점이나 복수전공자 차별 적용 등을 통한 '순위 뒤바꾸기'였다. 이를 맨 처음 보도한 광주일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학교 측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위 무시 허울뿐인 공채

부정 채용은 비단 올해만이 아니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18명의 기간제 교사를 같은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추가 포착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과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이사,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교장과 교감 등 4명을 해임토록 했다.

교사 채용 비리는 그동안 감사원이나 교육청 감사 때마다 문제가 돼왔던 사립학교의 단골 부조리 중 하나다. 교사로 임용되려면 거액을 재단에 기부해야 가능하다는 점은 교단 안팎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통해왔다.

채용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투명하지 못한 채용과정 때문이다. 사립학교 교원은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도 채용 권한은 재단에 주어져 있다. 교사를 채용하려면 공고-서류전형-면접-실기 등 전형단계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상당수 학교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2007년의 경우 광주지역 사립 중·고교 가운데 97%가 공개채용을 했음에도 30%는 인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인사위 규정에 교사채용 관련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학교도 40%에 달했다.

이번 정광학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형 요소를 멋대로 바꿔 순위를 조작하기도 한다. 재단 이사를 비롯 학교 운영위원 등의 입김도 공정한 채용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지난 2일 열린 광주시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일부 위원들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 실력보다는 재단이나 교육관료의 입김이 작용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이 건네진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광주 전체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에 대한 특별감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이례적으로 사학의 고위 관계자들을 무더기 해임토록 했지만 '맥빠진 감사'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합격자 순위를 뒤바꾼 배경이나 부정의 연결고리를 전혀 밝혀내지 못한 탓이다. 채용 비리 때문에 탈락한 응시생에 대한 구제 방안도 빠져 있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합격한 교사는 교단에 서고, 억울하게 탈락한 교사 지망생은 실업자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교육위원회나 교원단체에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는 주문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이 나서야

가장 중요한 것은 사학의 고질적인 채용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적극 나서고, 사학들도 교사 선발을 교육청에 의뢰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재단의 인사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면 교육청에서 2~3배수를 뽑아 그 중에서 선발토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학원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사장을 그만둘 각오로'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는 정광학원 이사장은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 해야 할 교육현장에서까지 이런 부정한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교직은 성직에 비견된다. 그 목표가 참된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를 선발하는 틀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사설

공공기관 개인정보 불감증 해도 너무한다

광주지역 일부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주범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서구보건소와 광산 경찰 등 공공기관들이 이면지와 메모지를 통해 민원인들의 개인신상정보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자원재활용 일환으로 이면지를 활용하면서 개인정보가 적힌 이면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이다.

광주시 서구 보건소는 '소아암 백혈병 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명단' 등이 담긴 이면지를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 상자 수불' 대장 용지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 백혈병 환자 명단에는 이름과 주소·주민등록번호·가구 월 소득액 등 상세한 정보들이 기재돼 있다. 문제는 이 대장들이 보건소 3층 옥상 계단에 비치돼 민원인이면 누구나 이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광산경찰 교통사고 조사계에선 제대로 폐기하지 않은 음주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굴러다닌다고 한다. 이 보고서엔 음주운전자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음주 경위 등이 적혀 있지만 관리는 엉망이다. 더욱이 이들 기관들은 서류를 폐기하면서 '유출주의'라는 안내문은커녕 파쇄기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이쯤 되면 공공기관들이 정보 흘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든다. 실제로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웹사이트 내 개인정보가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지, 한 번 유출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국야구 '위대한 도전' 자랑스럽다

한국 야구 대표팀의 지난 한 달 동안의 여정은 위대하고도 감동적이었다. 김인식 감독이 이끈 국가대표팀은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결승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숙적 일본에 석패해 준우승에 그쳤지만 우승보다 값진 큰 일을 해냈다. 경제와 민생에 지친 국민의 메마른 마음에 시원한 봄비 같은 감동을 적셔줬기 때문이다.

야구 대표팀의 승리를 향한 길은 한 편의 감동 드라마 그 자체였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를 비롯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참가국 가운데 가장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결승전까지 진출한 것만도 놀랄만한 성과이기 때문이다. 야구 종주국 미국은 차치하고라도 결승전에서 맞붙은 일본은 협회에 등록된 고교팀만 4천100여 개에 달하고 퍼시픽-센트럴리그로 운영되는 프로야구 구단이 12개, 돔구장만 6개에 달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고교팀 고작 55개에 돔 구장 하나 없이 프로팀 8개로 근근이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코칭스태프와 젊은 선수들의 투혼과 응집력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비록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한국야구의 강인한 투혼은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럽다.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정쟁(政爭)과 비리 스캔들로 날을 지새우는 정치권은 WBC 국가대표팀이 보여준 '위대한 도전'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시간 내내 국민에게 행복과 감동을 안겨준 선수단의 리더십과 사명감은 정치권에게 시사하는바 크다.

20대 중반 젊은 피로 무장한 한국야구는 3년 뒤 또 다른 도전에 나설 것이고 그 도전은 성공하리라 확신한다. 이제 우리도 승리만 바랄 것이 아니라 시설 확충 등 저변확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한국야구의 선전을 계기로 우리 경제도 온 국민의 단합 아래 힘차게 일어서기를 기대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이병우

고구려가 통일 했으면 행복했을까?

고구려에 관한 사극을 보고 있으려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고구려가 어떤 나라인가? 동북아 대륙을 호령하고 중국의 수당제국을 쩔쩔 매게 한 강국이 아닌가? 우리 5천년 역사에 주변국에 이처럼 큰소리치며 지낸 시기가 또 있었던가? 그런 고구려가 패망하여 그 넓은 만주벌판을 내주고 한반도에 갖혀서 주변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운명으로 바뀌다니 말이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역사는 어떻게 전개됐을까? 만주벌판은 물론 몽골, 연해주까지 우리의 강역으로 남아 동북아의 수퍼 파워가 되어 있을까? 아니면 지금의 모습보다 못한 결과로 이어졌을까?

고구려의 멸망 후 일부는 통일 신라를 거쳐 고려, 조선으로 이어져 오늘의 대한민국과 북한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고구려의 일부 세력일 뿐이다. 백두산 너머에 살던 고구려 유민은 전혀 다른 길을 간다. 일부 세력은 발해를 세워 한동안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지만 거란족의 요나라에 의해 멸망한다. 또 다른 세력은 여진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구려 기상을 확실하게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여진족의 활약상은 고구려 만큼이나 대단했다. 금나라를 세운 아골타는 송화강 유역에서 태어났고 청나라 태조 누루하치는 건주 여진지역에서 자랐다. 여진족은 1125년 금나라를 세워 송나라를 남쪽으로 찌그려뜨리고 중국 양자강 이북을 다스렸으며, 17세기엔 다시 발흥하여 청나라를 건국하고 중국을 완전 정복하여 268년간 지배했다. 중국 이민족 역사에서 두번이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민족은 여진족이 유일하다. 하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만주족의 청나라는 쇠약해진 중국에 자신을 통째로 들어 바친 꼴이 되고 말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그냥 동북아의 강자로만 남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끊임없이 중국을 노렸을텐데 그랬다면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만주족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청태조인 누루하치는 만주족을 보존하기 위해 만주어를 창제했고 이후 청나라 조정은 이 뜻을 이어받아 만주족의 발상지를 금지구역으로 삼아 만주족만 살게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의 만주족이 98%의 한족을 지배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동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바로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중국의 일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조금은 안타깝지만 주머니속같은 한반도에 갖혀서 수 천년을 이어온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글, 우리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니 더 이상 고구려가 통일하지 못한데 대해 미련을 갖지 말자. 중국을 지배하지 않고 또 중국의 일부가 되지도 않은 채로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 지구의 배꼽같은 한반도에서 5000년의 축적된 힘을 발휘하기 위한 우주의 섭리는 아니었을까. 〈보해양조 이사〉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임영일

게임은 문화콘텐츠 핵심산업

1990년대 필자의 아들(당시 초등학교 3~ 4학년)이 밤늦게까지 집에 귀가하지 않자 온 집안 식구들이 찾아다닌 결과 오락실에서 발견돼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다. 아마도 그 당시 아들 또래의 부모님들이라면 한번쯤은 모두 겪어봤을 일이라 생각한다.

최근 게임산업 실태를 보면 일본의 게임기 업체인 닌텐도는 2009년 발표한 2008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영업이익을 5,300억엔(약 8조1천600억원)으로 전망했다.

국내 게임산업도 콘솔(비디오)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지난 2004년부터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거듭해 2007년에는 약 5조1천억원으로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기능성 게임은 교육은 물론 직무훈련, 건강증진, 의료 및 치료, 장애인 재활, 노인복지, 의식개발, 홍보, 산업 등 공공, 공익, 등의 요소가 내재 되어 있어 단순한 오락의 한계를 넘어 게임 요소에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의공학 등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하여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청소년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e-스포츠는 디지털시대에 새로운 문화콘텐츠이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2개의 e-스포츠 프로팀과 2개의 게임전문채널이 있으며, 지난 2007년 8월 신한은행배 프로리그 결승전에 7만명이라는 관람객들이 운집하여 한국의 새로운 문화인 e-스포츠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적이 있다.

이러한 게임산업 급신장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4년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게임산업인력양성사업 모집에 선정되어, 2009년까지 5년 동안 총59억원의 사업비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중앙대학교, 호남대학교에 '한국게임사관학교'를 설립 게임 기획·개발·운영 등의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전국 10여개의 게임업체를 참여 시킴으로써 지금까지 500여명의 게임 전문디렉터를 배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지난 2월 24일 우리지역 온라인 게임업체인 (주)아인 소프트사는 중국 게임업체인 차이나유니콤 웨이하이지사 등과 3자간 투자유치 및 수출계약 MOU 체결했으며, 이번 MOU는 차이나유니콤에서 아인소프트에 기술지원과 1천410만위안(약 30억원)을 지분참여 형식으로 투자하는 것과 아인소프트가 자체개발한 온라인 게임 'AIN Life'의 공급에 대한 계약금 460만위안(약 10억원) 및 매월 매출액의 22%를 로얄티로 지급하는 것으로, 시가 그동안 육성해온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향후 전망을 보여주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제는 게임산업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닌텐도'와 같은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하며, 우리지역에서도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에 걸맞은 게임 콘텐츠시장의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 문화산업과장〉

無等鼓

배순훈의 도전

지난 90년대 초반 대우전자가 한창 잘 나갈 때 '탱크주의'라는 말이 회자된 바 있다. 그 이전 대대적인 품질혁신운동에 나선 대우전자가 매출증대에만 치중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대안으로 출발한 게 바로 탱크주의 경영혁신운동이다. 탱크주의는 말 그대로 탱크처럼 단단한 제품을 만들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행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자는 운동에 다름 아니다.

이 탱크주의의 중심에 배순훈 당시 대우전자 사장이 있었다. 배씨는 경기고·서울대를 나온 데 이어 미국 MIT공학박사에다 대우전자 회장, 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지낸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 배씨가 지난 2월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에 임명돼 눈길을 끌었다. 억울한 해임이라는 전임 관장의 사정은 둘째 치고라도, 배씨의 임명은 호사가들의 화젯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66세의 나이도 나이지만, 장관까지 지낸 인사가 1급 차관보급인 관장자리를 꿰찼다는 사실이 입쌀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배씨의 얘기는 '뉴스감'과는 거리가 멀다. OECD 국가 중 수도에 국립미술관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며 이를 해결하자면 1급이든 2급이든, DJ정부건 MB정부건 상관없다는 게 취임 일성이었다. 나이 들어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다는 말도 곁들였다.

최근 펴낸 '우리에게 위기 극복의 유전자가 있습니다'라는 저서에도 이와 비슷한 심경이 담겨 있다. 배씨는 책에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한 유전자는 바로 한(恨)과 신명이며, 새로운 도전을 위한 경쟁력'이라고 말한다.

총체적인 경제위기에서 기업인은 물론 도시서민, 농어업인 등 모두가 너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데 익숙해진 듯하다. WBC 한국야구대표팀의 '위대한 도전'처럼 한을 신명으로 승화시켜 위기를 극복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종태 사회2부장 jtlee@kwangju.co.kr

도로변 옥돔 사기 판매 조심해야

주말에 시내 도로가에 차를 잠깐 세우고 있었는데 바로 앞 트럭에서 웬 남자들이 내리더니 내 승용차 쪽으로 다가와서는 운전석 차창을 두들겼다. 한 남자가 "사장님, 옥돔 드시죠? 그런데 이게 비싸서 자주 못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 옥돔을 싸게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죠"라며 날더러 내려보라는 손짓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원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옥돔을 배송하는 기사들인데 오늘은 비번이고 해서 그동안 팔다가 남은 옥돔을 싸게 팔기 위해 차를 끌고 나왔다고 했다. 나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알았다는 손짓만 한 채 그다지 괘념치 않았다.

나에게는 물건을 파는 걸 포기하고 상인들은 얼마후 다른 차에게 다가가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는 정말 옥돔을 팔았다. 과연 저런 장사꾼들에게서도 물건을 사는구나 싶어서 놀라웠다. 왜냐면 길거리에서 파는 옥돔이라는 건 국내산 참 옥돔이 아니라 대부분이 중국산 옥두어라는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엉터리 중국산 옥두어가 제주산 옥돔으로 둔갑해 팔리는데 운전자들은 이런 판매자들에게는 속지 않는 게 상책일 듯 하다. ▲오선진·광주시 동구 서석동

농·어촌 지역 '개인 신용 회생' 브로커 판 쳐

지금 농촌이나 어촌에 가보면 '빚으로부터 해방, 채무변제, 빚 독촉금지' 등의 문구가 적힌 법무사무소의 현수막이 무수히 걸려있다. 이것은 개인 채무자들에게 법적으로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유도하기 위한 전문 업자들의 홍보용 현수막들이다.

물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혹은 농업 어업을 하다가 망할 수는 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유독 농어촌에 이런 현수막과 전문 브로커들이 활개를 칠까. 그것은 한마디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채무자들을 꼬드기는 나쁜 행위이다.

예를 들어 어업을 하다가 거짓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선박 등을 재산목록에서 빼돌리는가 하면, 양식 중인 고기의 가격을 축소 신고하는 등 거짓 진술을 해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을 쓴다.

따라서 재산보유 기준을 채무자 개인 단위에서 세대 단위로 하고, 증빙이 곤란한 사채는 대상채무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면 한다. 이런 기본사항을 다시 만들지 않으면 농촌에서는 돈 떼먹고 파산하면 되고, 돈 빌려쓴 뒤 못 갚는다고 배째라 해도 된다는 사고가 만연해 국가적인 문제점으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동기·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